

電算要員과 전공과목

情報處理분야에서 맡은바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전산요원들의 학교시절 전공과목을 알게되면 『아! 그래요?』 하고 반문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된다. 현재 국내에서 전산기이용분야에 종사하는 전산요원들의 경우 理工系출신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는 하나 음악·미술전공에서부터 법학·천문기상학전공등 다양하다. 그야말로 대학에 있는 모든 전공분야의 인재들이 업계와 교육기관 등에 散在되어있는 실정이다. 별의별 전문지식을 요하는 광범위한 정보산업분야에서 하드웨어 부문은 비교적 전공해당자가 많이 종사하고 있겠으나 소프트웨어 (S/W)부문의 전산기이용 기술분야에는 해당분야 전공자가 극히 드물다.

그리하여 전산기도입 역사가 짧고 전산경력자가 제한되어 있는 국내실정으로는 해당분야의 전공과 電算경력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은 사치에 속하며 맡는 업무도 경력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학교시절의 특정 전공과목보다는 전산요원으로서의 경력이 보다 중시된다고 하겠다. 전산요원 선발시 전공과목보다는 전산적성검사에 큰 비중을 두는 것도 전산요원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때 기본적인 論理性和 數理的 사고에 대한 적성만 있으면 해당 이용분야의 어려움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곽병근
삼미전산 상무이사

결과적으로 이공계 출신인 필자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전산기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프로그래밍하는 초기단계에서는 흥미도 있고 적성에도 맞다는 자신감에 젖어 있었지만 점점 管理者로서 시스템설계 중심의 이용분야에 종사하면서는 새로운 지식의 필요성때문에 당황하곤 하였다. 생산관리분야를 설계할 때는 생산의 전반적인 업무에 정통해야하고 경영정보시스템에 관심을 갖게되면 생산·영업·회계 원가 등 經營에 관계되는 폭넓은 지식을 필요로 하게된다.

또 이룩해야할 결과를 분명히 안다고 하여도 그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는 회사현실과 對人 관계를 포함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정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스스로의 지식에 한계를 실감한다. 아직까지는 정보처리분야에서는 전산전문가라고 하면 통상 다방면에 경력을 지니는 일정수준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연상하게되지만 향후 전산화가 폭넓게 확대되고 생활화되는 몇년 후에는 특정부문에 좁고 깊게 알고 있는 전문가가 더욱 환영 받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